

9. 시제, 상, 양태

학습 목표

- 시제의 개념과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차이와 각 문법형태의 기능을 이해한다.
-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차이를 이해한다.
- 상의 개념과 상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 양태의 개념과 양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한다.

주요 용어

시제
절대시제
상대시제
상
양태

1. 시제

시제(時制, tense)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시간은 어휘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문법적 수단에 의한 것만 시제라고 한다. 한국어의 시제는 과거(past), 현재(present), 미래(future)의 삼분 체계이다.

나는 어제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다. <과거시제>
철수는 지금 소설책을 읽는다. <현재시제>
내일은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미래시제>

1.1. 과거시제

과거시제는 발화시(發話時)를 중심으로 할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과거시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어미 ‘-았/었-’이 결합하여 표현된다.

어제 친구와 함께 동대문에 갔어요.
좋은 물건을 많이 사서 기분이 좋았어요.

(가) ‘-었-’의 다양한 의미

한국어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은 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① 상황이나 동작의 완결

나는 지금 교실에 도착했어.
내일 아침은 다 먹었다.

② 현재의 상태

그 학생은 연예인을 닮았다.
그 친구는 나보다 잘생겼다.

(나) 대과거시제 ‘-었었-’

‘-었었-’은 ‘-었-’에 의하여 표현되는 과거의 상황보다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이다. ‘-었-’은 과거 이외의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으나 ‘-었었-’은 단순히 과거 상황에만 쓰이며, 과거에 끝난 어떤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었음을 나타낸다.

명수는 초등학교 때에는 똑똑했었어.
→ 초등학교 때에는 똑똑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 회상시제 ‘-더-’

‘-더-’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회상해서 남에게 보고할 때 쓰는 문법형태소이다. 종결형에서는 주로 ‘-던데요, -더라, -더군요, -데요’의 형태로 나타난다.

김 선생님은 아침에 기분이 좋으시더군요.
 → 김 선생님이 기분이 좋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더-’를 사용한 것이다.

■ ‘-더-’의 특징

심리형용사 ‘좋다, 기쁘다’ 등이 서술어일 경우에는 항상 주어가 일인칭 ‘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형용사 서술어가 아닐 경우에는 ‘나’가 주어가 될 수 없다. 즉 화자 자신의 외적인 경험을 말할 때는 ‘-더-’를 쓸 수 없다.

{나는 / *철수는 그 옷이 좋더라.
 {철수는 / *나는 새로 나온 음악을 듣더라.

1.2. 현재시제

현재시제는 발화시를 중심으로 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동사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는-’이 결합하여 표현되며, 형용사나 ‘이다’에는 기본형 ‘-다’로 표현된다. 형용사나 ‘이다’에는 어떤 선어말어미도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표적(無標的)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초롱이는 지금 공부를 한다. <동사>
 나는 밥을 먹는다. <동사>
 오늘 친구의 모습이 예쁘다. <형용사>
 그것은 내 책이다. <‘이다’>

■ 현재시제의 특징

① 현재시제는 확정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사용된다.

기말고사는 언제 끝나니? 다음 주에 끝납니다.
 나는 3일 뒤에 친한 친구와 부산에 놀러 간다.

② 현재시제는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사용된다.

지구는 둥글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1.3.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발화시 이후의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선어말어미 ‘-겠-’과 ‘-리-’나 문법적 연어인 ‘-ㄴ 것이다’를 통해서 표현된다.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능력 등의 다양한 양태 의미를 나타내거나 공손(politeness)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서울은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꼭 성공하리라.
 친구들은 아마 내일 새벽에 집에 도착할 것이다.

지금 밖에는 눈이 오겠다. <추측>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 힘으로 이겨 내겠다. <의지>
 이제야 밥을 좀 먹을 수 있겠다. <능력>
 여기 않아도 되겠습니까/됩니다? <공손>

1.4. 관형사절의 시제

한 문장이 관형사절로 내포될 때, 일정한 시제 형태가 나타난다.

(가) ‘-는, -은/니’

① ‘-는’은 동사와 ‘있다, 없다’에 쓰여 현재나 현재진행을 나타낸다.

지금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너의 손에 있는 물건이 무엇이나?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는 호중이가 과제를 알려 주렴.
 해가 뜨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 <현재진행>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의 누나다. <현재진행>

② ‘-은/니’은 동사에 쓰여 과거와 완결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며, 형용사, ‘이다’에 쓰여 현재를 나타낸다.

내가 선물로 준 반지를 잃어 버렸어. <동사, 과거>
 그녀는 꽃을 든 채로 울고 있었다. <동사, 완결된 상태 지속>
 돈이 많은 철수는 새 차를 샀어. <형용사, 현재>
 대학원생인 수진이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다’, 현재>

(나) ‘-던’

‘-던’은 과거에 어떤 일이 지속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나타낸다.

수지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취업을 했습니다.

■ ‘-던’의 특징

① ‘-던’은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쓰이지 못한다.

*여기가 내가 결혼하던 예식장이다.

② ‘-더-’와 다르게 ‘-던’은 ‘나’가 주어가 되는 데 제약이 없다.

내가 먹던 밥을 어디에 지웠니?

(타) ‘-을/르’

‘-을/르’은 관형사절에 쓰여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측, 의도의 의미도 나타낸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갈 곳은 동대문이다. <미래>
어제 왔을 소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추측>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는 무엇을 할 작정이니? <의도>

1.5. 절대시제와 상대시제

(가) 절대시제

절대시제(絶對時制, absolute tense)는 화자가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시제이다. 절대시제는 화시적 범주(deictic category)에 속하는데,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태의 시간적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제 그 일을 모두 끝냈어.
정호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나) 상대시제

상대시제(相對時制, relative tense)는 발화시 이외의 다른 사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시제이다. 한국어의 상대시제는 내포문이나 접속문에서 표현되는데, 같은 형태를 같은 시제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참 즐거웠다.
→ ‘보내니까’는 절대시제로는 과거이고, ‘즐거웠다’라는 사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상대시제로는 현재이다.

2. 상

상(相, aspect)은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범주이다. 한국어의 상은 주로 보조 용언 구성이나 문법적 언어 구성을 통해서 표현된다.

초롱이가 빵을 다 먹어 버렸어.	<종결상(completive)>
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다.	<결과상(resultative)>
호중이가 몸을 굽고 있다.	<연속상(continuous)>
왜 그렇게 머리를 긁어 대니?	<반복상(iterative)>
성호는 시험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진행상(progressive)>
고향에는 내일 가려고 해.	<예정상(prospective)>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기동상(inceptive)>
가끔 그녀를 보러 학교에 놀러 가곤 했다.	<습관상(habitual)>

3. 양태

양태(樣態, modality)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다양한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양태를 표현하는 데에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나 부사와 같은 어휘 그리고 문법적 연어 구성이 사용된다. 양태는 그 의미와 나타내는 형식들이 매우 다양하다.

①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

아마도 지금 밖에는 눈이 오 <u>겠</u> 다.	<추측>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희와 결혼하 <u>겠</u> 다.	<의지>
그 친구는 새로운 애인이 생겼 <u>을</u> 걸.	<추측>
철수가 그 학교 학생이 <u>었</u> 구나.	<새로 앎>
그 식당이 음식은 맛있 <u>진</u> .	<이미 앎>

②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

그는 <u>확실히</u> 모범적인 사람이다.	<확실성>
철수는 <u>마땅히</u> 상을 받아야 한다.	<당위성>
그 친구가 <u>뜻밖에</u> 찾아왔다.	<의외성>

③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적 연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u>바라는</u> 법이다.	<확실성>
지금 건물 앞에서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u>찍는</u> 모양이야.	<개연성>
아마 집에 가는 방법을 <u>알지도</u> 모른다.	<가능성>
나도 놀이동산에 <u>놀러</u> 가고 싶어.	<바람>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려고 <u>한다</u> .	<의도>
그 정도 문제면 저도 <u>풀</u> 수 있습니다.	<능력>
오늘은 비싼 옷을 <u>사도</u> 좋아.	<허락>
모든 생명은 소중히 <u>여겨야</u> 한다.	<의무>

1. 아래 문장에서 알 수 있는 현재시제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 ㉠ 내일은 학교에서 답사를 떠납니다.
- ㉡ 난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한다.

2. 아래의 문장에서 '-겠-'과 '-ㄹ 것이다'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시오.

- ㉠ 하늘이 어두운 걸 보니 비가 오겠어요.
- ㉡ ?하늘이 어두운 걸 보니 비가 올 거예요.

3. 아래 문장의 () 안에 상(相)을 나타내는 문법적 연어를 넣으시오.

- ㉠ 그녀는 가끔 혼자서 동물원에 놀러 가(). <습관상>
- ㉡ 내일은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 <예정상>
- ㉢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 <결과상>
- ㉣ 갑자기 그녀는 막 뛰(). <기동상>

10. 피동과 사동

학습 목표

- 피동문의 형성 방법을 이해한다.
- 피동문의 종류를 이해한다.
- 피동문의 문법적 특성을 이해한다.
- 사동문의 형성 방법을 이해한다.
- 사동문의 종류를 이해한다.
- 사동문의 문법적 특성을 이해한다.

주요 용어

피동

피동사 피동

‘-어지다’ 피동

사동

사동사 사동

“-게 하다’ 사동

1. 피동

피동(被動, passive)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을 말하며, 피동이 나타난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의 기본적인 의미 특성은 동사가 표현하는 사태를 탈행동화(脫行動化)하는 것이다. 피동과는 반대로 스스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능동(能動, active)이라고 한다.

1.1. 피동문의 형성

한국어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대응되는데,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에, 에게, 에 의해'가 결합되어 부사어가 된다. 서술어는 타동사에서 피동사(자동사)로 바뀌거나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다. → 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었다. → 도자기가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1.2. 피동문의 종류

(가) 피동사 피동

피동사 피동은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만 가능하다. 한국어의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으며, 이 접미사들이 결합되면 타동사가 자동사가 된다.

'-이-': 묶다→묶이다, 보다→보이다, 쓰다→쓰이다
'-히-': 막다→막히다, 먹다→먹히다, 잡다→잡히다
'-리-': 걸다→걸리다, 물다→물리다, 쓸다→쓸리다
'-기-': 감다→감기다, 씻다→씻기다, 찢다→찢기다

■ 피동사 피동의 특징

① 모든 타동사에 피동접미사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 수는 없다. '만지다'와 같이 어간이 '이'로 끝나는 동사와 '주다, 드리다'와 같은 수여동사(受與動詞)와 '얻다, 받다'와 같은 수혜동사(受惠動詞), '닭다, 만나다'와 같은 '와/과'를 요구하는 동사들은 피동사가 될 수 없다.

② 피동사 피동문에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피동문에 어떤 현상이나 결과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능동문에 행동의 의지를 가진 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날씨가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철수는 집안에 틀어 박혀 있어.
온 가족이 감기에 걸렸어요.
최근에 일이 꼬인다.

③ 일부 피동사는 자동사에서 파생되기도 한다.

천둥이 울다. → 천둥이 울린다.
강아지가 존다. → 강아지가 즐리다.

④ 피동사는 ‘자발적 사건’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창문이 저절로 열린다. <자발적 사건>
이 책은 비교적 잘 읽힌다. <가능성>

(나) ‘-어지다’ 피동

서술어에 어미 ‘-어’와 보조동사 ‘-지다’를 결합한 형태를 붙여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와 ‘-지다’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 ‘-어지다’ 피동의 특징

① ‘-어지다’ 피동은 피동사피동이 되지 않는 타동사들에도 쓰일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이 결국 이루어졌다.

②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하면 ‘시작’의 의미나 ‘상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교실이 갑자기 따뜻해진다. <시작>
공사를 하고 방이 넓어졌다. <상태 변화>

③ 자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모두가 함께 힘을 쓰니까 큰 돌이 움직여졌다.

④ ‘-어지다’ 피동은 인지(認知)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자연스럽지 않다.

멀리서 큰 성이 보였다.
?멀리서 큰 성이 보여졌다.

⑤ ‘-어지다’ 피동은 자발적이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므로, ‘저절로’와 같은 부사가 쓰이면 자연스럽지 않다.

이가 저절로 뽑혔다. / ?이가 저절로 뽑아졌다.

(ㄷ) ‘되다, 받다, 당하다’ 피동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와 용언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을 통해서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그 물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었다.
 돈을 빨리 갚으라고 강요받았다/강요를 받았다.
 친구들에게 얼굴이 못생겼다고 무시당했다/무시를 당했다.

■ ‘되다, 받다, 당하다’ 피동의 특징

‘되다, 받다, 당하다’는 선행 표현의 의미에 따라서 결합 제약이 있다.

영희가 범인에게 협박(*되다/받다/당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되다/받다/*당하다).
 발표를 잘해서 교수님께 칭찬(*되다/받다/*당하다).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되다/*받다/*당하다).

2. 사동

사동(使動, causative)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동이 나타난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2.1. 사동문의 형성

① 사동문은 능동문에 대응된다. 사동문에서는 능동문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능동문 주어는 목적어나(자동사, 형용사) ‘에게’ 또는 ‘한테’가 결합되어 부사어가 된다(타동사).

능동문	사동문
아이가 웃는다. (자동사)	어머니가 아이를 웃긴다.
도로가 넓다. (형용사)	사람들이 도로를 넓힌다.
학생이 책을 읽는다. (타동사)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히신다.

② 사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상황을 하나의 복합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누나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 누나가 동생에게 시킨다(원인) + 동생이 옷을 입다(결과)

2.2. 사동문의 종류

(가) 자동사 사동

자동사 사동은 사동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단형 사동이나 형태적 사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어의 사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으며, 이 접미사들이 결합되면 자동사나 형용사는 타동사가 된다.

• 자동사→사동사
 ‘-이-’; 녹다→녹이다, 속다→속이다

‘-히-’; 높다→높히다, 익다→익히다
 ‘-리-’; 돌다→돌리다, 열다→열리다
 ‘-기-’; 웃다→웃기다, 숨다→숨기다
 ‘-우-’; 깨다→깨우다, 비다→비우다

• 타동사→사동사
 ‘-이-’; 먹다→먹이다, 보다→보이다
 ‘-히-’; 입다→입히다, 읽다→읽히다
 ‘-리-’; 듣다→들리다, 알다→알리다
 ‘-기-’; 감다→감기다, 벗다→벗기다
 ‘-우-’; 지다→지우다, 비다→비우다

• 형용사→사동사
 ‘-이-’; 높다→높이다
 ‘-히-’; 넓다→넓히다
 ‘-구-’; 달다→달구다
 ‘-추-’; 늦다→늦추다

■ 사동사 사동의 특징

① 사동사 파생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일부 동사만 사동사가 될 수 있다. ‘주다, 드리다’와 같은 수여동사와 ‘얻다, 받다’와 같은 수혜동사, ‘앉다, 만나다’와 같은 ‘와/과’를 요구하는 동사, ‘공부하다, 연락하다’와 같은 ‘-하다’가 붙은 동사는 사동사가 될 수 없다.

② 일부 동사는 사동 접미사를 두 번 사용한다.

서다→세우다(서+이+우+다), 자다→재우다(자+이+우+다)

③ 사동사 사동문에는 사동사가 특수한 의미를 지니게 될 때,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저 축구선수는 과거에 이름을 날렸다. → *이름이 날았다.
 우리 집에서는 소를 먹인다. → *소가 먹는다.
 (‘먹이다’는 ‘사육하다’는 의미이지만 능동문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나) ‘-게 하다’ 사동

어미 ‘-게’와 보조동사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장형 사동이나 통사적 사동이라고도 한다. ‘-게’와 ‘하다’는 띄어 쓴다.

■ ‘-게 하다’ 사동의 특징

① 사동사 사동이 쓰일 수 없는 많은 동사에 쓰일 수 있다.

친구가 나에게 연락하게 한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장난감을 주게 하셨다.

② 능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이 될 때, 조사 ‘가’가 결합될 수 있다.

*어머니께서 철수가 옷을 입히셨다.
어머니께서 철수가 옷을 입게 하셨다.

③ ‘-게’ 대신 ‘-도록’이나 ‘하다’ 대신 ‘만들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선생님께서 철수를 옷게 하셨다.
선생님께서 철수를 옷도록 만드셨다.

④ ‘이다’에는 ‘-게 하다’ 사동이 사용되기 어렵다. 이때 ‘되다’를 사용하면 가능한 문장이 된다.

그녀가 철수를 {^{*}부자이게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

■ 사동사 사동과 ‘-게 하다’ 사동의 차이

① 사동사 사동은 주로 직접(直接) 사동을 나타내고, ‘-게 하다’ 사동은 간접(間接) 사동을 나타낸다. 직접 사동은 사동주 자신이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반면, 간접 사동은 사동주 자신이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동사 사동은 중의적인 경우가 많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신다. <사동사 사동>
→ 어머니께서 직접 아이에게 밥을 먹이시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도록 어머니께서 시키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신다. <‘-게 하다’ 사동>
→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도록 어머니께서 시키신다는 해석만 가능하다.

② 부사의 수식 범위가 다르다. 사동사 사동은 사동주의 행위를 수식하지만, ‘-게 하다’ 사동은 피사동주의 행위를 수식한다.

그 친구는 사람들을 잘 웃긴다.
→ ‘잘’은 친구가 웃기는 행위를 수식한다.

그 친구는 사람들이 잘 웃게 한다.
→ ‘잘’은 사람들이 웃는 행위를 수식한다.

(ㄹ) ‘시키다’ 사동

접미사 ‘-시키다’를 통해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주로 ‘하다’가 쓰인 말을 ‘시키다’로 바꿔서 표현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1. 아래의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시오.

- ㉠ 모든 학생이 수박을 한 개 먹었다.
- ㉡ 수박 한 개가 모든 학생에게 먹혔다.

2. 아래의 피동문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 ㉠ 사람들이 모두 그 병에 걸렸다.
- ㉡ 날씨가 많이 풀렸다.
- ㉢ 최근에는 일이 많이 꼬인다.

3. 아래의 두 사동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시오.

- ㉠ 할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 ㉡ 할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